

Rifampin사용에 의한 급성 신부전 1예

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학교실

장기준 · 김병규 · 강미선 · 김상현 · 박원도

Rifampin Induced Acute Renal Failure

Jang Gi Jun, Kim Byung Kyu, Kang Mi Sun, Kim Sang Hyun, Park Won Do

Internal Medicine, Sanggye Paik Hospital, Inje University

서론: Rifampin은 폐결핵치료제로 흔히 쓰이며, 부작용 또한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. 흔한 부작용으로 오심, 구토, 열, 두통, 발진, 가려움증 등이 있을 수 있으며, 급성 신부전은 덜 알려진 부작용이다. 미국의 경우 1971년부터 1997년까지 85건의 Rifampin사용에 의한 급성신부전이 보고된 바 있다. 저자들은 폐결핵으로 Rifampin치료 중이던 37세 남자에게 발생한 급성신부전을 경험하였기에 이에 관해 보고하는 바이다.

증례: 37세 남자 환자로 내원 전일 복통, 오심, 구토등을 주소로 개인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결과 T.bil 4.7 mg/dL, BUN/Cr 13/1.0 mg/dL, AST/ALT 25/23 IU로 전원되었다. 과거력으로 20세때 폐결핵을 앓았고 완치되었다가 7일전부터 재활성화된 폐결핵으로 Isoniazid, Rifampin, Pyrazinamide, Ethambutol을 복용 시작하였다. 내원 당일 생체 징후는 혈압 140/90 mmHg, 심장박동수 74/min, 호흡수 20/min, 체온 36.3℃였다. 혈액 검사 상 혈색소 13.4 g/dL, 백혈구 8,610/mm³, 혈소판 131,000/mm³으로 측정되었고, BUN/Cr 52/12.8 mg/dL, AST/ALT 25/12 IU, T.bil 0.5 mg/dL, 소변검사서 protein 3+, blood 4+보였고, FENa는 2.2로 측정되었다. 소변양은 감소하지 않았으며, 신체검사서 양쪽에 CVA tenderness가 있었고, 함요 부종은 없었다. 입원과 동시에 폐결핵 치료제 사용은 중단하였고, 내원 다음 날 Cr 14.54 mg/dL로 상승하였다. 이에 내원 2일째부터 혈액 투석을 2일간격으로 시행하면서 Rifampin을 제외한 다른 결핵약은 그대로 투약하였고, 투석 시행2일째 Cr 16.17 mg/dL에서 14.91 mg/dL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. 입원 2일째에 시행한 신장조직검사서 multifocal acute or chronic tubulo-interstitial nephritis소견과 함께 IgA 신병증이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. 혈액투석은 시행후 15일 째 Cr 8.04 mg/dL까지 시행하였고, 혈액 투석 시행 28일째에 Cr 4.7 mg/dL로 감소하여 환자는 퇴원하였다. 이후 환자는 퇴원 1달후 외래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에서 Cr 1.3 mg/dL로 정상화 되었다.

고찰: Rifampin은 면역반응에 의한 면역복합체가 사구체 epithelium 에 침착되어 tubular ischemia를 유발하거나, interstitium에 침착되어 hypersensitivity를 유발하여 ATN혹은 AIN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.

Key Words: Rifampin, 급성신부전, 면역반응
Rifampin, ARF, Renal failure